

# ‘완장’ 찬 상인회... ‘환장’ 할 노점상

## 남광주시장 자릿세 걷다 적발된지 며칠이나 됐다고... 또 부당징수 횡포

42년 전통 새벽시장 일그러진 구조 보니

- 최상층 상인회 관리인 뽑아 슈퍼甲 권력
- 중간자 관리인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다”
- 최하층 노점상 “땀보였지만 좌판도 못벌어 힘이 없으니 당할 수밖에”



광주 동구청이 자릿세 징수를 금지시켰음에도 지난 25일 새벽 남광주종합상가(해뜨는)시장상인회에서 채용한 중간 관리인이 시장을 돌며 노점상에 '자릿세'를 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서민들이 부대끼는 시장에도, ‘갑을(甲乙) 관계’는 존재했다.

하루 벌어 먹고사는 딱한 처지의 ‘을(乙)끼리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대전통시장이 아닌, ‘갑을(甲乙) 관계로 얽혀있는 추악한 속사정들이 끝없이 들려온다. 새벽에 시골에서 올라온 노인들은 시민들 소유의 공유지에 좌판을 벌이지 못할까 ‘윗분’들인 상가 관리자들에게 ‘자릿세’를 꾸준히 건넸다. ‘갑’인 상인들은 수십년째 ‘관리비’로 걸어진 게 당연한 듯 받아채웠다.

단속이라도 뜨는 날에는 좌판을 걷어차는 행패를 서슴지 않았고 ‘자릿세’ 징수 사실이 드러난 뒤 행정당국이 금지시켰음에도 여전히 일부 노점상에겐 자릿세를 챙기는 등 관행에 익숙해져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 내 주차장에 자리한 42년 전통의 새벽시장은 정글같은 먹이사슬 구조를 찾아볼 수 있다.

이른바 최상층에는 상인들로 구성된 남광주종합상가(해뜨는) 시장상인회다. 이 상인회에서 뽑은 관리인들은 좌판을 돌려 영세 노점상들을 직접 상대하며 자릿세를 거두는 권력을 휘둘렀다. 영세 노점상들로부터 매일 1000원씩 꼬박꼬박 받아냈고 ‘자릿세’ 징수 사실이 드러난 뒤 동구청이 금지시켰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시민들 소유인 푸른길공원 방문자센터(옛 남광주역사) 앞길도 ‘봉이 김선달’ 역할을 톡톡히하며 제 땅인 듯 자릿세를 거뒀다.

좌판을 벌이는 노점상들은 당연한 듯 챙겨왔다. “힘이 없으니 당할 수밖에 없지 않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하고 달라는 대로 줬다”고 하소연한다. 자릿 땀보였다고 새벽부터 찾아왔는데 좌판을 벌이기는 커녕, 아예 물건을 팔 기회조차 얻을 수 없을 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위기감도 한몫을 했다. 이들이 하소연할 업무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행정·사법 당국의 힘은 미치지 못했다.

행정·사법 당국의 무관심, 무신경함 속에 방치된 새벽 시장은 시장 권력의 놀이터로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점상들에게 ‘갑’ 행세를 하며 관리비를 징수하는 중간 관리인(상인회에서 채용한)은 상인회 관계자들 앞에선 ‘을’로

전락한다. 상인회에 잘못 보였다가 고소란히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새벽시장 전 관리인 A씨는 “수 십년간 한 달에 75만~85만 원 정도 받고 쉬는 날도 거의 없이 일하지만 어쩔 수 없다”면서 “(상인회측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일을 그만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새벽시장의 기형적 구조가 장기간 방치돼온 이면에 유착 관계가 있지는 않은지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말도 터져 나오고 있다. 다른 전통시장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 정동영·임진택 등 민청학련 피해자에 법원, 10억9500만원 국가 배상 판결

국악인 임진택(64) 씨와 정동영(61)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등 이른바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 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정 고문과 국악인 임진택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국가가 10억9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무효를 선언한 지난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3년 이내 소송이 제기된 만큼 기간 내 이뤄진 권리 행사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1심은 과거사위원회 회가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2005년 이후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선고 이전에는 긴급조치의 위법성에 대한 실제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과거사 위 조사 결과 등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곧바로 위법성을 주장하며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민청학련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기관이 가해자가 돼 국민의 기본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면서 “국가가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유신정권의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지난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의 배후조종을 받아 공산주의 정권 수립을 목적으로 전국적인 시위를 일으켜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180여명이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는 2005년 12월 민청학련 사건을 정부가 고문·가혹행위 등의 방법으로 왜곡한 사건으로 규정,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국가 차원의 적절한 배상 및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고문 등은 60~141일간 구금돼 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석방됐고, 2012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 납품업체서 뒷돈 받은 한수원 전무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26일 납품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전무 김모(59)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배전운영 상황실 시스템 등 각종 정보통신(IT) 장비를 공급하는 K사로부터 발전소 상황판 등을 납품하는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사는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IT 통신센터 구축용 주주제 사업 등 한전

KDN이 발주하는 사업 13건을 22억 원에 계약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한전의 또다른 자회사인 한전KDN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도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4일 체포했다.

K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전력 전 상임감사 강승철(54)씨 등 6명이 이미 구속됐다. 검찰은 K사가 사업을 따내기 위해 한전과 자회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남광주시장상가 불법 원룸 임대 강력 행정제재

동구, 전수조사... 이행강제금에 단전·단수 검토

동부경찰, 무료주차권 위조 의혹 수사 확대

광주 남광주시장종합상가의 불법 원룸 임대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가 이뤄진다.

광주시 동구는 26일 남광주시장종합상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는대로 이행강

제금 부과를 비롯한 단전·단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남광주시장종합상가 2층·3층에 불법으로 지어진 원룸에 대해 소유주와 세대, 위법여부 등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구는 불법 용도변경과 증·개축 등 위법 건물에 대해서 고발과 이행강제금부과 등을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시정기간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단전·단수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구는 지난 2005년 남광주시장종합상가 내 판매시설을 불법 용도 변경한 사실을 파악, 해당 소유주들에 대해 올해까지 1억

3547만 원(8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징수실적은 113만 원(4건)에 그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동부경찰도 남광주시장 무료주차권 위조 의혹과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남광주시장 주차운영위원회의 사무실을 방문, 위조 무료주차권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봉인된 무료주차권 한 상자를 수거했다. 경찰은 무료주차권에 묻은 지문을 채취, 역추적 방식으로 위조 여부와 관련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계버릇 못버리고...출소 석달만에 동네 사우나 돌며 행패



○...동네 찜질방과 사우나 등을 돌며 종업원과 시설을 찾은 손님

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철창신세.

○...26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7월 만기출소한 김모(44)씨는 출소 석달여 만인 지난 22일 밤 8시40분께 광산구 흑석동의 한 사우나에서 고함을 치고 드

러누워 소란을 피운가 하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간 경찰서 사무실에서 소변을 보고 행패를 이어갔다.

○...전과 35범인 김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 입장하려 했는데 막아서자 화가 났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김씨의 행패를 목격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추가 확보,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월산동 지하, 지상4층 “상가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19번지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반지하 - 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 - 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 - 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4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 시세 및 감정가 - 7억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융 4억 가, 보 1억에 월 340만 가)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올 수리

■ 주인 직매 H. 010-3605-5000



## “경매투자”

- ▶ 배우면서 투자가능
- ▶ 특수물건만 취급
- ▶ 1대1 개인지도
- ▶ 경매사 자격증 발급
- ▶ 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천경매  
H.010-3605-5000